

탈레반, 한국인 인질 1명 살해

배형규 목사 추정 시신 발견...아프간·탈레반 '8명 석방설' 부인

협상 시한 오늘 새벽 5시30분까지

▶ 관련기사 3·4면

한국인 23명을 납치한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이 25일 한국인 남성 인질 1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측은 특히 26일 오전 1시(한국시간 26일 오후 5시30분)를 인질 석방에 관한 마지막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추가로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 이번 피랍 사태와 석방 교섭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나머지 인질 22명 가운데 8명의 석방설이 나돌고 있으나 탈레반측은 이를 부인했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아프간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듣지 않았고 우리 죄수들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 남성 인질 1명을 총살했다”며 살해된 한국인의 시신을 가즈니주(州) 카라바그 지구 무세키(Musheky) 지역에 버렸다고 밝혔다.

아프간 경찰은 이 지역에서 머리와 가슴 등에 10발의 총상을 입고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한국인 인질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지 통신인 아프간 이슬라미 프레스(AIP)는 탈레반이 이날 오후 4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배형규 목사.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 인질 1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25일 수도 카불과 칸다하르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협상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변인 아마디는 26일 오전 1시(한국시간 26일 오후 5시30분)를 최종 협상시 한으로 제시하고 이 때까지 자신들이 요구한 동료 수감자 8명을 풀어주지 않으면 남은 인질들도 살해하겠다고 위협, 나머지 인질들의 생사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형국으로 몰리고 있다.

탈레반측은 24일 아프간측에 불잡힌 탈레반 포로 8명과 한국인 인질 8명의 맞교환을 카드로 띄웠으나 아프간측의 완강한 태도로 이 카드가 잘 먹혀들지 않자 1명을 살해하는 극단적 선택을 취하고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와 일본NHK방송 등 국내외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와 아프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인 23명 가운데 8명이 석방돼 안전한 곳으로 이동중이다.” “풀려난 한국

인 인질의 성별은 여자 7명과 남성 1명”이라고 보도했으나 탈레반측은 이를 전면 부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탈레반 대변인 아마디와 접촉한 현지 소식통은 이날 “탈레반은 한국 정부의 8명 석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탈레반과 한국 정부가 직접 협상중”이라고 덧붙였다.

알 자지라 방송도 “남은 인질은 모두 22명”이라고 확인했다.

알 자지라 방송은 이어 남지 지역인 가즈니주에 집결한 아프간 군경과 미군은 인질 살해소식에 구출작전을 위해 병력을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6일 새벽 1시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뉴얼리·두비니 로이터·AIP=연합뉴스

코스피 2000시대

코스피지수 2,000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관련기사 11면〉

25일 코스피지수는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전일 대비 11.96포인트(0.60%) 상승한 2,004.22로 마감, 종가 기준 사상 최초로 2,0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도 6.13포인트(0.75%) 상승한 819.60에 마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이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 2,000 시대 개막을 앞당겼다고 분석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지방기업 법인세 최고 70% 감면

매칭펀드사업 지방분담 비율 차등화

2단계 균형발전 대책

2008년부터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 기존 지방소재 기업 등을 해당 지역 낙후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받는다. 정부의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시 지역 낙후도를 반영하는 등 국고 사업에 대한 자체의 부담도 완화된다.

〈관련기사 6면〉

또 지방대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처음으로 신설되는 등 지방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우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물론 기존 지방기업까지 기간제한 없이 법인세를 감면해 가장 발전 정도가 낮은 1그룹인 경우 70%, 2그룹 50%, 3그룹은 3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대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최초 10년간 1그룹은 70%, 2그룹 50%, 3그룹 30%를 감면받고 이후 5년간은 그 절반인 35%, 25%, 15%를 각각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지방에 대한 지역 투자나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산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하며, 최소 개발규모도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 기업 종업원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여기에 지방국립대병원을 병원별로 암, 심·뇌혈관계 질환 등 특화분야를 지정해 특화·전문 의료기관(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125억 원 규모

의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을 처음으로 신설해 내년부터 지급한다. 137개 지방 4년제 대학 인문계열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 2천 21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줄 예정이며, 이공계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의 지방 비중도 현행 49%에서 65%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법인 개업인사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들은 이번에 뜻을 같이하여 ‘법무법인 광주로펌’을 설립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 노력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고객 최우선의 입장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광주로펌

방영철 이승체 이철원 배상

변호사 김재진 최국신 한광수

■ 주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동 1208 골든빌오피스텔 102호

전화: 062-382-0889 팩스: 062-383-0889

■ 개업소연 : 2007. 7. 27. 오전 11시부터 오후 18시 주사무소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